

# 문어발 산은, 4.3조 손실·22.6조 부채에도 ‘연봉 킹’

(3대 국책 은행 중)

## 이웃사촌 두 국책은행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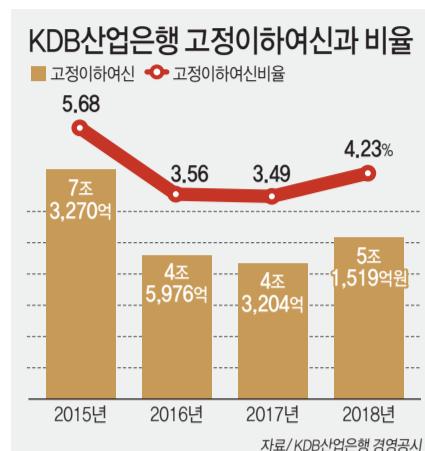
### ③ 산은, 실적 부진에도 연봉 ‘高高’(꼴)

투자 기업 지난해 기준 총 208곳 평가 손실 투자처 31곳, 전체 15% 부채 규모 3대 국책은행 중 2번째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합병론을 제기하면서 산은의 경영능력 부족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산은의 핵심 과제인 기업 구조조정과 창업·벤처 기업 지원 실적은 저조한 반면, 재무건전성은 악화됐기 때문이다. 산은은 부진한 실적에도 임직원의 연봉이 3대 국책은행(기은·수은·산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산은, 핵심과제 실적은 ‘미진’

지난 8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 따르면 산은이 지분 보유나 출자 등의 형태로 투자한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08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부상 평가 손실이 난 투자처는 모두 31곳으로 전체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출금의 출자전환 및 회사에 대한 직접투자 등으로 보유하게 된 25조4309억원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주식 중 4조324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산은은 부실기업 경영 정상화와 더불어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기존 채권의 출자전환이나 직접투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해 출자회사로 관리하고 있다. 출자회사가 부실화 될 경

우 투자금 회수 지연·손실 등으로 산은의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이 저하되고, 나아가 산은이 타 분야에 사용해야 할 정책금융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산은 출자회사의 주식 손실이 발생한 이유로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손실 발생, 해외 현지법인 투자 미숙, 투자시점에서의 추정 대비 수익 저조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산은이 다양한 출자회사를 관리하기 위해선 해당 출자회사 각각에 대한 재무적·영업적·사업적 측면 등에서 다방면의 검토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산은의 지원 실적도 미흡하다. 올해 6월까지 총 261회가 열린 KDB넥스트라운드의 경우 944개 기업의 투자설명회 중 168개 기업만이 8700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뒀다. 10개 기업 중 1~2개 기업의 투자 유치만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IR라운드의 횟수와 참여기업, 실제 투자액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2016년 22개사, 2017년 44개사에 이어 지난해 64개사에 투자를 유치하며 꾸준

히 실적을 올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 ◆건전성 악화에도 임직원 연봉은 ‘高高’

한편 산은의 재무건전성은 부실채권이 쌓이면서 악화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지난해 말 부채는 2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4000억원 증가했으나, 부채 규모는 3대 국책은행 중 기업은행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산은의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23%로 2017년보다 0.74%포인트 증가해, 3대 국책은행 중 유일한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동안 수은과 기은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1.7%포인트, 0.0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산은이 정책금융으로써 특정기업에 거액여신을 보유하고 있었고,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들이 지난해 말 고정여신으로 분류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라간 것”이라며 “신용포트풀리오 강화 등을 통해 건전성을 개선시키고 있어 연말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마무리가 되고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해외점포 또한 높은 부채비율과 취약한 리스크 관리로 당국

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은 산은 렌더지점과 홍콩지점의 자산규모 대비 미흡한 내부통제력 및 위험자산 증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 부실을 이유로 각각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반면 산은의 임직원 연봉은 3대 국책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의 직원 평균연봉은 1억548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수은 임직원이 평균 1억238만원, 기은 임직원이 평균 1억154만원을 받았다.

한편 은행수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산·수 합병론은) 이 회장이 사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산은과 수은이 힘을 합친다는 것이 두 기관 간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산은과 수은이 더 이상 둘어서 회자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다”고 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웨이브(wave)’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점등 포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우디 피폭에 외환 출렁… 환율 1200원대 ‘코앞’

전일보다 7.6원 오른 1190.7원 마감 국제유가 불안 가능성 리스크로 두각

지난달 급등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대외 악재가 누그러지면서 한 달 반 만에 1180원대로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는 듯하더니 하루 만에 1190원대로 다시 급등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국제유기가 급등하고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다.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83.1원)보다 7.6원 오른 1190.7원에 마감했다. 전날 1180원 대를 기록한 이후 하루 만에 다시 1190원대로 오른 것이다.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9원 내린 1183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18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1일(1188.5원)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3일 1215.6원에 마감한 것에 비하면 약 2주 만에 30원이 넘게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역외시장에서 먼저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178.75원에 최종 호가되면서 1180원을 밑돌았다.

추석 연휴로 국내 금융시장이 휴장하는 동안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위험회피 심리가 누그러진 영향이 커졌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는 것도 원화 강세로 나타났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역내 시장은행이 ECB에 자금을 예치할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종전 -0.4%에서 -0.5%로 낮췄다. 오는 17~18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코스피가 0.11포인트 상승한 2,062.33으로 장을 마감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FOMC)와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화 강세 흐름은 하루를 버티지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폭등하고 뉴욕증시는 급락하는 등 악재가 닥치면서다.

16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2.70포인트(0.52%) 하락한 2만7076.8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9.43포인트(0.31%) 내린 2997.9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17포인트(0.28%) 하락한 8153.54에 장을 마감했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주요 시설이 무인기 공격으로 사우디 산유량의 절반, 전 세계 공급량의 5%에 각각 해당하는 하루 570만 배럴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4.7% (8.05달러) 뛴 62.90달러에 장을 마감했

다.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전장 대비 19.5% 폭등하기도 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당분간 환율의 변동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로서는 사우디의 시설복구가 얼마나 걸릴지는 물론 미국 등의 보복공격 여부에 따라 유가가 더 큰 폭의 급등을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겉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미·중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종전이 아닌 휴전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까지 미·중 무역협상은 순조롭게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분쟁은 격화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1220원대까지 급등한 바 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악재로 꼽힌다. 중국 경제가 부진하면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와 동조화 현상으로 있는 원화도 약세를 띠게 된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연 6%대 초반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희주 기자

## 손발 뮤인 채 글로벌 공룡과 경쟁

### » 1면 ‘거칠것 없는…’ 서 계속

문제는 이런 법안이 토종 OTT 서비스에만 적용돼 글로벌 사업자들과 역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업체들은 규제에 밭이 뮤이지만 해외 업체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 게다가 가입자 규모, 매출 등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는 시점에서 유료방송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국내 규제 틀 안에 포함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내 OTT가 규제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KT도 ‘합산규제’에 고착화

방송통신 융합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규제에 신음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KT는 합산규제로 인해 인수·합병(M&A)이 녹록치 않다.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합산 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33%)을 넘을 없도록 한 규제로 지난해 6월 일몰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일몰 뒤 재도입 등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지 못해 고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 KT의 경우 딜라이브 등 유료방송

사업자를 인수하면 점유율 33%를 넘어 합산규제의 빗에 걸리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를 재도입 하느냐 마느냐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중요치 않은 문제”라며 “글로벌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코드커팅(시청자가 뉴미디어로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열어주고 자율경쟁하도록 풀어줘도 통할까 말까한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규제 개선 강조한 과기정통부·방통위…‘정부 간섭 최소화해야’

이를 주관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후 이러한 국내외 역차별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내비쳤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웨이브 출범식에서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이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 경쟁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간의 상호협력을 지원하고 융합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미디어의 ‘공공성’은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의 ‘혁신성’이 미디어 생태계 전체에 고루 스며도록 하겠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김나인 기자 silknii@